

제목	유럽연합 단일시장 전략과 현황		
거점명	브뤼셀	제출일	2019.10.14
내용	<p>유럽 단일시장의 필요성</p> <p>유럽 단일시장(The Single market)은 사람,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이 EU 내에서 한 국가와 거의 동일하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시도이다. 위 4가지의 자유로운 이동은 유럽연합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단일시장은 유럽의 경제성장과 번영, 산업경쟁력 및 통합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저변에 있다.</p> <p>이는 특히 디지털 시대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보장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서 유럽 특유의 문화와 배경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p> <p>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들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국과 비교하면 그 입지가 다소 좁아지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장기적으로 유럽의 인구와 GDP는 다른 국가와 지역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통계 변화만 보아도 2060년부터 유럽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5% 미만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일본과 같은 전통적 경제대국 이외에도 중국, BRIC으로 대두되는 신흥 경제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유럽은 한 목소리와 채널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p> <p>개요</p> <p>유럽 시장의 단편화 경향과 이를 통한 국가별 장벽은 여전히 실존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국과 초대형 기업들의 유럽시장 공략은 유럽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일 시장으로의 강도 높은 통합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단일시장 정책의 강화는 국제무역에서도 유럽 시장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p>		

<그림> 유럽연합 단일 시장의 강점: 자본, 노동력, 혁신 생태계



EU 정책전략 기조 및 대응방안

당시 EU 집행위원장이었던 응커가 2014년 6월 관련 정책기조 30개 안을 공표한 이후 그 중 28개는 유럽연합 의회와 유럽연합집행위의 검토를 마쳤으며 나머지 2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디지털 커넥티드 유럽 (Creating a digitally connected Europe)

사유	대응방안
빠른 인터넷 보급에 있어 소외된 시민 지원	유럽전략투자기금(EFS)를 통해 디지털 분야에 413억 유로를 투자하고, 유럽구조투자기금을 통해 디지털 기술에 140억 유로를 추가 편성 2,800개 지차체를 대상으로 15만 유로에 달하는 WiFi4EU 바우처를 지급하여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핫스팟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와이파이, 모바일 및 기타 무선 장비를 위한 무선 인프라 부족	2023년 까지 통신 인프라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1조 유로 가치에 상당하는 가치창출 대표적으로 5G, 커넥티드 카, 원격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비디오스트리밍 등에 투자
온라인 공공서비스 및 모빌리티 지원	2020년까지 단일 디지털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보급하여 EU 시민과 기업들이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온라인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

2. 소비자와 기업을 위한 장벽 철폐 (Breaking down digital barriers for consumers and business)

사유	대응방안
타국 여행 중 온라인 서비스, TV채널 등 이용 제한	2018년 이후 EU시민은 영화, 스포츠 이벤트, 전자서적, 비디오 게임, 음원 서비스를 회원국 내에서 동일하게 접근 가능
로밍비용 부담	EU 내 로밍요금 철폐, 70%의 EU시민들이 로밍 페이지를 통해 편의와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
시대에 뒤떨어진 소비자 권리 보호	개정된 소비자 보호법과 디지털 계약 법규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에서 보다 많은 권익을 제공해 주며, 다른 회원국에서의 온라인 구매에 느끼는 불안감 대폭 해소
지리적인 이유로 온라인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접근 어려움	2018년 12월 3일부터 지오블로킹(geoblocking)의 부당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안이 도입되었고, 온라인 거래상의 지리적인 위치나 국가적 차별이 대폭 해소
회원국 간 높은 배송비	가격 투명성과 규제를 통해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온라인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간 전자상거래 건수를 4%, 국가간 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수 6%, 온라인 거래 5% 각각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 지닌 것으로 조사
시각장애인의 문화접근 확대	인쇄물 형태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해 점자나 오디오북과 같은 형태의 콘텐츠 활성화 법안 도입
비개인정보 데이터 (날씨, 교통정보) 공유 활성화	국경을 초월하여 데이터를 손쉽게 저장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 저비용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보급하며, 이를 통해 민간 분야 경제효과는 104억 유로 규모로 커질 전망
상거래 환경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의 애로사항 해결	공정하고 실용적이며 비용 저렴한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활동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호텔예약, 앱 개발 등)을 위한 규제 및 문제점 적극 해결
가짜뉴스의 위해성에 대한 대책 수립	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대중 토론 활성화를 위해 EU는 액션플랜을 도입하여 허위정보에 적극 대응 이 액션플랜은 4개로 구분: 허위정보 노출/분석, 허위정보 억제를 위한 강력한 협력과 연대책임,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 지원, 사회적 관심과 반향 촉진

3. 디지털 유럽의 미래를 위한 투자 (Investing in the digital future of Europe)

사유	대응방안
인공지능	유럽연합집행위는 인공지능과 로봇틱스 영역을 단순히 기술개발만이 아닌, 윤리, 법률, 사회경제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유럽시민을 위한 서비스와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
수퍼컴퓨터	현재 세계 수준의 유럽 슈퍼컴퓨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억 유로 편성 2020년까지 유럽을 세계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2018년 EuroHPC Joint Undertaking 설립, 특히 맞춤형 의료, 바이오공학, 기상예측, 기후변화, 신소재 개발, 신약개발, 유전 탐사, 항공기 및 자동차 디자인, 스마트 시티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사이버범죄	Directive on 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을 통해 Cybersecurity Act를 제정,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 이를 위해 유럽 네트워크 정보보안국(ENISA)의 위상을 강화하며, 유럽 내 공동 사이버보안 인증체계를 개발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도 함께 강화

비고

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political/files/factsheet_singlemarket_march2019.pdf
https://ec.europa.eu/commission/sites/beta-political/files/dsm_roadmap_20190318_17.pdf